

제1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5. 8. 11(화) 10: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권대훈, 김신원, 문선욱, 박기웅
박명수, 이용철, 임상빈, 최은경
- ◆ 안 건 : 미술작품 5건 9작품(조각 6, 회화3)
[신규 5건, 재심 4건]
- ◆ 결 과 : 승인 7작품, 재심 2작품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2015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위원 8명중 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10분정도 개별적 심의 및 채점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경찰서 재심작품입니다.
- : 작가가 교체되었나요?
- : 지난 심의때 3작품이 들어왔는데 포돌이, 포순이의 경우 경찰서 상징으로 같은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 : 지난 심의에 작품의 위치와 작품모양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 : 지난 심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두 번째 작품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 : 2-1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의 경우 이용덕 작품이 아닐 경우 표절의 가능성이 있구요. 가격면에서도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 : 건축물과의 조화에서 엘리베이터와의 사이에 공백이 너무 없고, 버튼의 위치가 어디에 달릴지도 의문입니다.
- :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의 경우 상가주택
- : 설치 위치도 작가가 정한건지 회사가 정한건지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 CG보다 많이 튀어나와보일거 같습니다.
- : 회화작품이 설치될 공간이 많이 없긴 한데 이 작품의 경우 오히려 건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제고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 세 번째 작업은 위치는 괜찮아 보이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치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은 크기를 1/5로 축소하면 좋을거 같기도 합니다.
- : 저는 조각을 공부했었는데 가격이 좀 과다한거 같긴 합니다.
- : 가격에 대한 논의는 좀 피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 : 채점 기준에 가격적정성이 있으니까요 논의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 지난 심의자료가 준비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양쪽에 위치하는데 화강석 재질의 사람모양과 스텐이 이렇게 위치하는게 어떨지 한번 봐주시죠.
- :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길이가 3.3m인데 두께가 4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 : 기존의 작품들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 : 안전하다면 위치를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 건축물 투시도를 보시면 설치위치가 주황색 동그라미인데 위치를 앞에 튀어나온 건물 낮은 층수에 접근성이나 시각적으로 볼 때 연결성, 주 진입로에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치가 나올거 같습니다. 현재 위치는 좀 애매합니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강동경찰서인데 컨셉보면 버드나무의 유연함을 표현하였는데 버드나무는 본래 물가에 위치하는데요 생각의 전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생똥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 : 밑에 볼 바깥부분이 30cm 스테인레스 스틸봉이 220cm정도로 실제 길이가 190정도인데 손에 닿는 길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이전 작품과 조화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 : 미적인 작품으로는 좋아 보이는데요. 물론 각자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요.
- : 이전 심의때 참여했었는데요 포돌이 포순이의 경우는 머리가 너무 커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경찰서의 주문에 의해 들어왔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재심때 작가가 자신의 스타일로 가지고 온거 같습니다.
- : 자연물을 스텐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부조화스럽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 : 화강암과 좀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감상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이걸 같은 작가의 작품인가요?
- : 두 작가가 참여했고 뒤에 두 작품이 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 : 설치금액 사용계획서를 보면 설치비가 너무 과다한데 창작비를 더 올려주는게 나올거 같습니다.
- :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이 양식이 조각에 해당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어서 수정을 얘기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회화부분을 다르게 만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또 하나는 조명인데요. 작품을 위한 조명이 없어서 밤에 상당히 어두울 거 같습니다. 회화는 조명이 없으면 야간에 감상이 어려우니 조명에 대한 지적이 필요합니다.
- : 변경전과 후가 같은 작가인가요?
- : 첫 번째 작품은 작가가 변경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은 지난번과 같은 작가입니다.
- : 이 오피스텔엔 총 4개의 작품이 전시되네요. 지난번 작품도 이번에 올라온 작품과 비슷한 작품인가요?
- : 지난 번 심의 통과된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 : 검토하시고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에 설치될 조각 작품입니다. 앓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을거 같네요. 재질이 스테인레스인데 이 재질은 여름에 엄청 뜨거워져서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 : 쓰레기를 안에 넣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연두색은 이빠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 가격대비로 작품이 매우 사이즈가 큰데요. 제가 여러 곳에 이런 컨셉의 작품을 여러 점 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 : 주출입구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움집해서 설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기대효과에서 작가가 잔디와 쉼터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작품설치 상세도에 보면 안전성에서 어린아이들이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다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부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는게 어떨 가 싶구요.
- : 차도가 아니라 인도인거죠? 시각적인 즐거움을 줘야 하는데 난간에 1층에 차라리 있으면 멀리서 조형물이 가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광으로 채도 높은 연두색이 보인다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즐거울 거 같습니다.
- : 이 부분은 경사지 단지로 인한 옹벽이기 때문에 1층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단지 내에서는 보이지 않고, 도로 측에서 보입니다.
- : 도면을 보면 스틸과 우레탄 도장마감인데 도장마감은 영구적으로 보존이 안됩니다.
- : 우레탄의 경우 반영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우레탄은 반영구적이어도 도장마감은 그렇지 않아 관리를 작가가 끝까지 해주던가 해야 합니다.
- :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 : 건축물 배치도를 보면 이 장소는 많은 시간 음영지가 생기는 곳입니다. 잔디가 생장이 잘 안되고, 잔디를 깔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잔디의 내성이 있어서 죽지도 않고요. 꽃을 심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공간, 시설, 재료와 작품이 다 원원이 되어야

합니다.

- : 스테인레스 재질의 안전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거나 해서 위협할 수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 그런 면에서 잔디보다 지피, 초화류 등을 설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 그럼 조건으로 잔디를 바꾸는 것과 안전성 등 뭐가 더 있을까요
- : 상부에 설치된 스테인리스의 면이 손이 닿으면 위협할 수도 있으니 예리한 면이 없도록 마감처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 :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럼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LED조명을 통해 색깔이 변하는 작품인 거 같습니다.
- : 작품 설명판의 내용이 조금 성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브론즈(새장식)를 빼고는 다 좋은 거 같습니다.
- : 구조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 밴딩이 어려운가요? 밴딩이 쉽게 이루어 진다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쉽다면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 : 새모형은 디자인에 도움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 : 모든 작품을 검토했으니 개별 채점해주시죠.

<채점 진행>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위원장>

- 오늘은 9개 작품 중 2-1번과 2-2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혹시 승인된 작품에 대한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아까 강동경찰서 작품 위치 및 작품 크기 변경과 미르웰 오피스텔 회화 작품에 대해서는 개별 조명 설치하는 사항, 4번 작품에서 상부 안전성과 하부 바닥면에 지피,초화류 식재하여 쉽게 들어가기 어렵게 하고 5번 작품에서는 브론즈 새를 없애는 조건으로 승인처리하리 하겠습니다. 이상의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